

제5장

투자관련 조사통계 정비 및 개선방안

홍현정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설비투자는 한 국가의 수요 창출 및 생산능력 증대 등의 원동력으로서 그 자체의 경제적 역할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책적 수요도 커짐에 따라 관련 통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설비투자관련 통계는 작성방법에 따라 크게 조사통계와 추계통계로 분류할 수 있다. 조사통계는 수요측면(demand side)에서 설비투자를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것이며, 추계통계는 공급측면(supply side)에서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¹⁾에 의해 간접적으로 추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추계통계는 국가전체의 설비투자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작성방법상의 한계로 업종별 설비투자 동향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추계통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미시정책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책당국자나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는 곤란하다.

1)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은 설비투자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설비투자재의 총공급(국내생산, 수입)에서 중간수요와 투자 이외의 최종수요(소비, 재고증감, 수출)를 뺀 나머지를 토대로 보는 것.

한편 공급측면의 추계통계는 어느 정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 투자의 흐름 등 추이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요측면의 조사통계들은 공급측면의 통계와 괴리가 상당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사통계 간에도 불일치를 보이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가통계 품질진단 용역보고서(2006)에서도 설비투자 조사통계들은 통계별로 설비투자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통계의 해석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통계별 작성시점 및 조사대상 기업에 대한 조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통계의 통폐합 등 조사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설비투자관련 조사통계를 작성하는 산업은행, 전경련, 산자부, 기업은행 중 기업은행을 제외한 3개 기관은 모두 조사대상이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로 치우쳐 있어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의 투자형태 포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연구보고서에서도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업 육성 정책 등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많이 거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설비투자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작성기관 당국은 조사환경의 열악함을 호소하며 관련 통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기관별로 조사되고 있는 설비투자관련 조사통계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련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비교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문헌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나 조사별 차이의 원인 등을 파악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설비투자관련 조사통계의 정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계간 불일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를 위해 제2절에서는 설비투자 개념 및 통계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설비투자 개념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93SNA 기준상의 차이를 살펴보고, 현행 설비투자관련 조사통계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절에서는 해

외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호주와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4절에서는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국의 시사점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2절 설비투자 개념 및 통계현황

1. 설비투자의 개념 및 포괄범위

설비투자는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즉 기계류 및 운수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혹은 금액을 말한다. 설비투자의 개념은 93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기준과 한국기업회계기준(Korea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두 경우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93SNA는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경제이론 및 원리에도 크게 의존하여 근거²⁾를 두고 있다. 예컨대 토지의 경우 93SNA에서는 토지 자체의 취득 또는 처분은 비생산자산³⁾의 매개로 간주하여 고정투자자산으로 보지 않는 데 반해 기업회계기준은 이를 고정투자자산으로 포함시켜 처리하고 있다.

[그림 5-1]을 통해 두 기준의 포괄범위 차이를 살펴보자. 93SNA의 총 고정자본형성 중 설비투자는 기계 및 장비와 육성자산으로 구성된다. 기계 및 장비는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수송장비와 기타기계 및 장비(사무용 장비, 가구 등)를 말한다. 단, 금융리스⁴⁾에 의한 기계 및 장비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사용자)이 취득한 것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 육성자산(cultivated assets)은 다른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가축 또는 나무 등을 말한다. 반

2) 93국민계정체계 1장 6. 1.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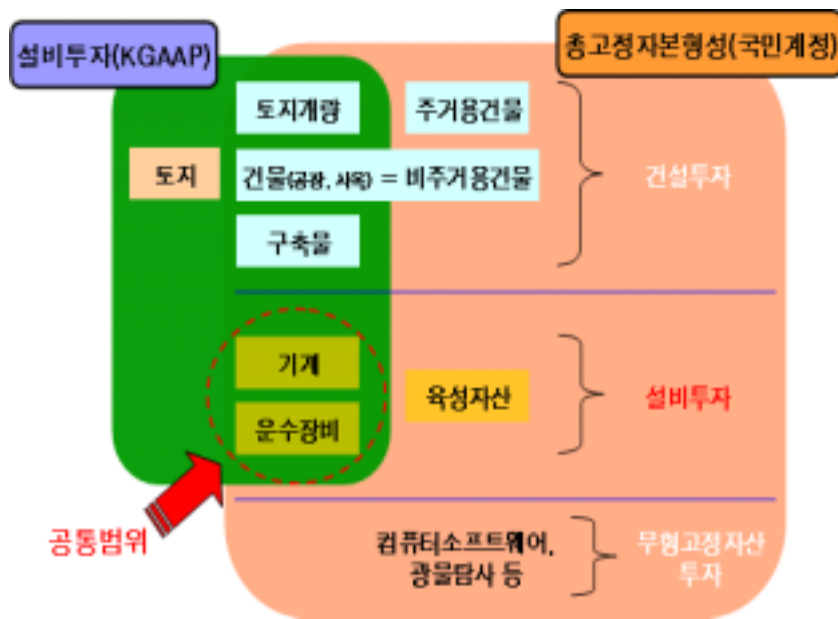
3) 비생산자산은 생산을 위해 필요하나 그 자체는 생산되지 않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 천연삼림, 광물자원 등 자연적으로 생성된 자산(Naturally Occuring Assets)이 해당됨.

4) 리스를 크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 보면 개념상 차이점은 소유권 이전의 유무에 따라 나타남. 이 중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금융리스의 경우만 설비투자에 산정되고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됨.

면 기업회계기준상의 설비투자는 기계장치, 공구 및 부품, 차량운반구와 더불어 토지의 구입 및 개발에 관련한 비용 전체와 93SNA기준에서는 건설투자로 포함하고 있는 건물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양 기준의 포괄범위의 차이는 투자의 규모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이한 결과로 도출될 여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설비투자관련 개념의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기존 설비투자관련 통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1] 기업회계기준과 93SNA의 설비투자 공통항목



2. 설비투자 통계의 종류

현행 설비투자관련 통계는 크게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진다. 공급측면 통계는 설비투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체를, 수요측면은 설비투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공

급측면의 통계 중 조사통계로는 통계청의 기계수주통계조사⁵⁾가 있고, 추계통계는 한국은행의 설비투자과 통계청의 설비투자추계지수가 해당된다.

〈표 5-1〉 설비투자 통계의 종류

	공급측면	수요측면
추계통계	- 설비투자(한국은행) - 설비투자추계지수(통계청)	
조사통계	- 기계수주통계조사(통계청)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통계청) -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산업은행) - 설비투자 계획조사(전경련) - 200대 주요기업 설비투자 계획조사(산자부) - 중소기업 설비투자전망조사(기업은행)

반면 수요측면의 통계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4개 기관의 설비투자관련 조사통계가 있다. 이 중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연간으로 실시되어 산업은행 등 다른 조사기관의 설비투자 통계보다 시의성이 떨어져 설비투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통계들은 반기별로 조사되고 있으나 조사환경이 열악하고 통계수치의 신뢰성도 떨어져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산업은행, 전경련, 산자부, 기업은행에서 조사되고 있는 수요측면의 설비투자 조사통계 현황을 파악하여 설비투자 관련 단기지표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5) 기계수주통계는 설비용기계류를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체의 수주액을 수요자 및 기계 종류별로 매월 조사하여 향후 설비투자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이용.

3. 수요측면의 설비투자 조사통계

가. 작성기관별 전체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통계 비교

최근 2006년 실적의 경우 작성기관별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은 다음의 <표 5-2>와 같이 산업은행 7.1%, 전경련 10.4%, 산자부 13.0%로 발표되었다. 산업은행이 다소 낮게, 산자부는 다른 기관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2007년 계획치의 경우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은 산업은행과 산자부가 동일하게 발표하였으며, 전경련은 2.1%로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 동일한 시점상의 실적을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크게 차이나는 데는 설비투자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통계임을 나타내며, 그만큼 파악이 어려움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2006년의 제조업은 산업은행 5.8%, 전경련 7.9%, 산자부 8.8%로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비제조업은 각 기관별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는 증가율 대신 전체표본사업체 중 설비투자 실시여부 비율(2005년 39%, 2006년 38.5%)만을 발표하고 있어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작성기관별로 동일한 시점의 설비투자 실적에 대해 서로 다른 수치로 발표하고 있어 설비투자 동향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표 5-2> 작성기관별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증가율

		산업은행	전경련	산자부	기업은행
보고시점		07. 4. 5.	07. 2. 2.	07. 1. 23.	06. 8. 16.
2006년 실적	전체	7.1	10.4	13.0	-
	제조업	5.8	7.9	8.8	-
	비제조업	9.1	14.5	26.7	-
2007년 계획	전체	6.8	2.1	6.8	-
	제조업	0.8	-0.3	-1.3	-
	비제조업	15.3	5.8	29.6	-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추이를 [그림 5-2]를 통해 살펴보자. 각 기관별 수요측면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차이를 보이지만 시계열상의 추이는 다소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급측면의 국민계정 설비투자(명목기준)보다는 다소 높게 시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요측면 조사통계는 모두 조사대상이 대기업 및 제조업 위주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공유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흐름에 따라 공급측면의 국민계정 추계통계와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5-2] 작성기관별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추이



나. 작성기관별 세부 설비투자 통계 비교

좀 더 세부적으로 설비투자 실적을 비교해 보면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산자부는 일부 업종만 발표하고 있고, 기업은행의 경우도 수치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산업은행과 전경련의 경우만을 제시하였다. <표 5-3>과 같이 산업은행은 전경련보다 화학(42.3, 27.5), 1차 금속 및 비금속 광물(36.3, 22.1), 섬유·의복·신발 제조업(13.2, 0.3), 자동차

및 부품(-11.3, -4.2), 전기·전자·컴퓨터(-49.6, -12.1) 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경련은 정유의 기여율이 30.7%로 산업은행의 18.2%보다 높게 반영되어 있다.

비제조업의 경우도 산업은행은 전력·가스(55.8, 37.4), 방송·광고·사업서비스(11.9, 2.3), 건설업(-45.5, -13.4) 등이 전경련보다 큰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업종별로 표본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출액 기준으로 600대 기업을 선정해 조사하고 있는 만큼 세부 증가율의 경우 업종별 대표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2006년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 비교

(단위: %)

	산업은행			전경련		
	증가율	기여도	기여율	증가율	기여도	기여율
제조업	5.8	5.8	100	7.9	7.9	100.0
화학	29.2	2.4	42.3	34.2	2.2	27.5
1차금속 비금속광물	15.1	2.1	36.3	17.3	1.7	22.1
조립금속 기계 정밀기기	66.7	1.6	27.6	45.5	1.0	12.2
정유	38.1	1.0	18.2	50.6	2.4	30.7
조선 및 기자재	33.0	0.9	15.4	40.4	1.3	16.0
섬유 의복 신발	62.6	0.8	13.2	7.0	0.0	0.3
기타운송장비	176.2	0.3	6.0	107.0	0.3	3.5
고무 플라스틱	21.7	0.3	5.4	12.0	0.1	1.5
음식료 담배	8.3	0.3	4.6	15.9	0.4	5.2
목재 가구	-8.1	0.0	-0.6	-35.3	-0.1	-1.4
종이 펄프 인쇄	-24.9	-0.4	-7.6	-12.2	-0.1	-1.2
자동차 및 부품	-4.7	-0.6	-11.3	-0.2	-0.3	-4.2
전기 전자 컴퓨터	-5.9	-2.9	-49.6	-0.4	-1.0	-12.1

산업은행과 전경련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세부적으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의복·신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성기관들로부터의 인터뷰 결과 해당 기관들은 이들 분야의 표본업종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상당

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대체로 조사표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선정하는 부분의 경우만이라도 통계청 등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각 조사기관의 표본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4〉 2006년 비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 비교

(단위: %)

	산업은행			전경련		
	증가율	기여도	기여율	증가율	기여도	기여율
비제조업	9.1	9.1	100.0	14.5	14.5	100.0
전력 가스	17.8	5.1	55.8	16.4	5.4	37.4
도소매 숙박업	20.4	2.5	27.6	21.2	2.7	18.5
통신 서비스	12.0	2.3	25.6	19.3	4.2	29.0
운수업	18.9	2.2	24.0	29.2	3.6	25.1
방송 광고 사업서비스	26.8	1.1	11.9	10.2	0.3	2.3
광업	41.9	0.1	0.6	148.4	0.2	1.1
건설업	-17.5	-4.2	-45.5	-11.9	-1.9	-13.4

다. 각 조사기관별 표본 비교

조사기관들이 고유의 목적에 따라 설비투자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면 그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투자품질진단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실제로 각 기관별 표본집단 간의 중복성이 높고, 대표성에서도 일부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5-5>와 같이 현 조사기관은 중복되는 표본기업수가 상당하여 통계별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응답업체의 부담도 우려되어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한 원인을 파악해 보기 위해 표본의 구성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자료접근의 제약상 용이하지 않으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각 기관별로 표본을 추출하는 모집단으로 사용하

<표 5-5> 통계작성기관별 중복기업수

	산업은행	전경련	산자부	기업은행
산업은행		330	138	131
전경련	330		102	6
산자부	138	102		0
기업은행	131	6	0	
총계	2,933	464	202	2,722

자료: 통계청, 「투자분야 품질진단 요약보고서」, 2006.

고 있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와 한국신용평가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사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대표성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1) 산업은행

산업은행의 표본선정은 절사표본추출(cut-off)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절사추출방식은 표본선정시 해당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은행의 표본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각각 상이한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의 조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며, 표본 선정기준은 2단계로 구분된다. 선정의 1차 기준은 광업 및 제조업의 연간 유형고정자산증가액의 70%를 대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위 업체 순으로 표본을 선정한다. 그 후 1차 기준을 만족하는 표본에 한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기준으로 업종별 연간 유형고정자산증가액의 70%가 대표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하는 것을 2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표 5-6>은 산업은행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2005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의 제조업 커버리지 범위를 추정한 것이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전체를 모집단으로 보았을 때 사업체 규모는 117,818개이고, 이 중 산업은행의 선정기준으로 추출된 전체 표

본수는 약 4,273개이다. 표본업체 커버리지는 약 4%이고 유형자산증가액 커버리지는 83%이다. 이는 산업은행에서 표본수로 제시하고 있는 3,600개보다는 다소 크게 포착되어 일부 업종에서는 대표성이 더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금속, 비금속광물 광업 및 담배업종은 제외되어 있으며,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석유정제, 1차 금속, 운송장비 제조업은 유형고정자산증가액 커버리지가 90% 이상에 달하여 대표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비교적 영세규모가 많은 업종인 섬유, 조립금속, 가구 및 기타제조, 재생용 가공원료 등에서는 커버리지가 40% 미만으로 나타나 대표성이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산업은행의 광업·제조업 표본 커버리지 추정결과

(단위: 개수, 백만원, %)

제조업		사업체수			유형고정자산증가액		
KSIC 기준	산업은행 선정기준	전체	산업은행	비중	전체	산업은행	비중
10.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종업원 100인 이상	61	8	13	66	60	91
11.금속 광업	-	4	0	0	1	0	0
12.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548	0	0	179	0	0
15.음·식료품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8,389	278	3	2,877	1,534	53
16.담배 제조업	-	12	0	0	70		
17.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종업원 50인 이상	8,898	156	2	1,144	457	40
18.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8,386	104	1	391	242	62
19.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1,993	36	2	129	54	42
20.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종업원 100인 이상	2,076	15	1	321	153	48
21.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3,066	83	3	1,215	643	53

<표 5-6>의 계속

(단위: 개수, 백만원, %)

제조업		사업체수			유형고정자산증가액		
KSIC 기준	산업은행 선정기준	전체	산업은행	비중	전체	산업은행	비중
22.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종업원 100인 이상	6,147	99	2	914	444	49
23.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117	7	6	1,055	1,016	96
24.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4,060	585	14	7,672	6,760	88
25.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종업원 50인 이상	9,036	234	3	3,253	1,669	51
26.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4,161	103	2	4,207	3,212	76
27.제1차 금속산업	종업원 100인 이상	2,923	173	6	15,348	14,025	91
28.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종업원 50인 이상	15,012	203	1	3,360	939	28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16,057	321	2	4,950	1,898	38
30.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종업원 50인 이상	801	44	5	438	233	53
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6,226	512	8	1,728	1,172	68
32.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5,111	484	9	45,442	44,106	97
33.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3,075	77	3	884	556	63
3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3,848	368	10	7,873	6,472	82
35.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업원 100인 이상	1,064	310	29	2,744	2,612	95
36.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종업원 50인 이상	6,278	61	1	586	199	34
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종업원 100인 이상	469	4	1	138	38	27
합 계		117,818	4,273	4	106,986	88,561	83

<표 5-7>은 비제조업 표본 추출틀인 2005년 기준 한국신용평가정보 DB(이하 한신평)자료를 이용하여 커버리지를 추정해 본 것이다. 산업은행은 비제조업의 선정기준을 종업원, 매출액, 자본금 등의 기준을 근거로 해당 규모 이상을 뽑아 활용하고 있다. 2005년 한신평 DB 전체 사업체 규모는 45,156개로, 이 중 산업은행의 선정기준으로 추출된 표본수는 약 30,836개이다. 표본업체 커버리지는 약 68%이고 유형자산증가액 커버리지는 95%이다. 전체 표본수로 3,600개를 선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추정된 비제조업 부문의 표본수는 30,836개로 훨씬 크게 포착되었다. 이들 중 수도사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은 표본에서 제외되어 있다.

<표 5-7> 산업은행의 비제조업 표본 커버리지 추정결과

(단위: 개수, 백만원, %)

비제조업		사업체수			유형고정자산증가액		
KSIC기준	산업은행 선정기준	전체	산업은행	비중	전체	산업은행	비중
40.전기, 가스 및 증기업	전수조사	81	81	100	8,478	8,478	100
41.수도사업	-	2	0	0	3	0	0
45.종합 건설업	종업원 100인 이상	5,044	152	3	9,226	8,479	92
46.전문직별 공사업	종업원 100인 이상	7,758	106	1	436	154	35
50.자동차 판매 및 차량 연료 소매업	종업원 100인 이상	943	11	1	223	125	56
51.도매 및 상품 중개업	매출액 100억 이상	12,202	12,056	99	1,819	1,782	98
52.소매업(자동차 제외)	매출액 100억 이상	911	903	99	3,373	3,341	99
55.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100억 이상	810	774	96	1,114	961	86
60.육상 운송 및 파이프 라인 운송업	자본금 10억 이상	796	795	100	2,203	2,203	100
61.수상 운송업	자본금 10억 이상	204	203	100	672	672	100
62.항공 운송업	전수조사	19	19	100	376	376	100

<표 5-7>의 계속

(단위: 개수, 백만원, %)

비제조업		사업체수			유형고정자산증가액		
KSIC기준	산업은행 선정기준	전체	산업 은행	비중	전체	산업 은행	비중
63.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자본금 10억 이상	1,397	1392	100	3,501	3,296	94
64.통신업	매출액 100억 이상	219	215	98	4,061	4,060	100
65.금융업	-	40	0	0	38	0	0
66.보험 및 연금업	-	7	0	0	10	0	0
67.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123	0	0	40	0	0
70.부동산업	매출액 100억 이상	3,007	2,535	84	6,551	6,091	93
71.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매출액 100억 이상	149	144	97	299	299	100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매출액 200억 이상	3,924	3,804	97	908	903	99
73.연구 및 개발업	-	239	0	0	44	0	0
7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2,610	0	0	517	0	0
75.사업지원 서비스업	-	1,073	0	0	1,009	0	0
76.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	0	0	79	0	0
80.교육 서비스업	-	255	0	0	151	0	0
85.보건업	매출액 100억 이상	901	888	99	190	190	100
86.사회복지사업	-	11	0	0	0	0	0
87.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	557	0	0	949	0	0
88.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	427	0	0	2,150	0	0
90.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50억 이상	755	726	96	648	435	67
91.회원 단체	-	34	0	0	248	0	0
92.수리업	매출액 100억 이상	366	362	99	17	17	100
93.기타 서비스업	-	276	0	0	193	0	0
합 계		45,156	30,836	68	49,524	47,293	95

자료: 한신평 DB(2005년 기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산업은행은 표본추출 선정기준이 업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제조업의 경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잘 포착되고 있지만, 비제조업은 표본에서 누락된 업종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누락업종은 설비투자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미미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부업종의 설비투자 동향파악 등 기초자료로서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전경련

전경련은 금융·보험업종을 제외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행하고 있다. 표본선정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상위 2,000개 기업 DB를 구입하여 전년도 매출액 기준의 상위 600대 기업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상위 50~60대 기업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위기업들은 해당 조사시점마다 포함여부가 바뀐다. 이들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커버리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표 5-8>을 통해 한신평 DB내 제조업 전체 39,975여 개 기업과 비교하면, 전경련의 600대 대상 기업 중 제조업은 약 310개 기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의 추정 표본은 특정 업종에 따라 1개 기업만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어 대표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제조업은 전경련 선정기준에서는 1개 기업체만이 추출되고 있다. 이처럼 특정 기업체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전체를 반영하는 경우 통계자료의 대표성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또한 유형고정자산증가액의 경우도 전체 대비 전경련의 비중은 산업은행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비제조업의 경우도 <표 5-9>를 통해 살펴보면, 전기 가스, 항공운송업, 통신업 등은 유형고정자산증가액 비중이 90%를 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업종은 커버리지가 낮게 추정되고 있다.

〈표 5-8〉 전경련의 제조업 표본 커버리지 추정결과

(단위: 개수, 백만원, %)

제조업	사업체수			유형고정자산증가액		
	전체	전경련	비중	전체	전경련	비중
K SIC 기준						
10.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20	1	5	212	178	8
11.금속 광업	4	0	0	6	0	0
12.비금속 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313	0	0	47	0	0
15.음·식료품 제조업	2,024	33	2	1,38	882	54
16.담배 제조업	6	1	17	151	141	93
17.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1,726	2	0	388	11	3
18.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968	6	1	306	40	13
19.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61	3	1	121	26	21
20.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502	0	0	181	0	0
21.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92	8	1	607	241	40
22.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55	6	1	393	57	15
23.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9	5	6	869	816	94
24.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385	54	2	4,504	2,810	62
25.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66	7	0	1,062	333	31
26.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691	16	1	1,209	508	42
27.제1차 금속산업	1,419	34	2	2,665	1,686	63
28.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613	1	0	917	76	8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50	16	0	1,687	325	19
30.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490	8	2	224	54	24
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479	10	0	1,036	353	34
32.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469	40	1	19,025	16,358	86
33.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94	3	0	444	125	28
3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13	42	2	6,537	4,035	63
35.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27	10	1	1,815	1,337	74
36.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1,429	4	0	182	24	13
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00	0	0	66	0	0
합 계	39,975	310	1	46,113	30,417	66

자료: 한신평 DB(2005년 기준).

〈표 5-9〉 전경련의 비제조업 표본 커버리지 추정결과

(단위: 개수, 백만원, %)

비제조업 KSIC기준	사업체수			유형고정자산증가액		
	전체	전경련	비중	전체	전경련	비중
40.전기, 가스 및 증기업	81	24	30	8,478	7,750	91
41.수도사업	2	0	0	3	0	0
45.종합 건설업	5,044	61	1	9,226	7,803	85
46.전문직별 공사업	7,758	2	0	436	20	4
50.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943	4	0	223	47	21
51.도매 및 상품 중개업	12,202	51	0	1,819	591	33
52.소매업(자동차 제외)	911	35	4	3,373	2,834	84
55.숙박 및 음식점업	810	4	0	1,114	333	30
60.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96	8	1	2,203	538	24
61.수상 운송업	204	13	6	672	452	67
62.항공 운송업	19	2	11	376	375	100
63.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397	6	0	3,501	956	27
64.통신업	219	11	5	4,061	3,902	96
65.금융업	40	3	8	38	38	99
66.보험 및 연금업	7	2	29	10	0	0
67.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23	1	1	40	14	36
70.부동산업	3,007	10	0	6,551	4,376	67
71.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149	1	1	299	0	0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3,924	11	0	908	360	40
73.연구 및 개발업	239	1	0	44	0	0
7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10	12	0	517	114	22
75.사업지원 서비스업	1,073	2	0	1,009	637	63
76.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2	13	79	73	93
80.교육서비스업	255	6	2	151	27	18
85.보건업	901	5	1	190	110	58
86.사회복지사업	11	0	0	0	0	0
87.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557	6	1	949	178	19
88.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427	4	1	2,150	261	12
90.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755	0	0	648	0	0
91.회원 단체	34	1	3	248	90	36
92.수리업	366	1	0	17	5	28
93.기타 서비스업	276	1	0	193	21	11
합 계	45,156	290	1	49,524	31,905	64

자료: 한신평 DB(2005년 기준).

3) 산자부

산자부는 표본으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 19개 업종과 전력, 유통 등 비제조업 5개 업종이다. 한신평 DB자료를 통해 추정된 산자부의 업종별 표본 커버리지는 다음과 같다.

〈표 5-10〉 산자부의 제조업 표본 커버리지 추정결과

(단위: 개수, 백만원, %)

제조업 KSIC 기준	사업체수			유형고정자산증가액		
	전체	산자부	비중	전체	산자부	비중
10.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20	1	5	212	178	84
11.금속 광업	4	0	0	6	0	0
12.비금속 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313	0	0	47	0	0
15.음·식료품 제조업	2,024	13	1	1,38	577	35
16.담배 제조업	6	1	17	151	141	93
17.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1,726	0	0	388	0	0
18.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968	0	0	306	0	0
19.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61	0	0	121	0	0
20.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502	0	0	181	0	0
21.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92	1	0	607	31	5
22.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55	0	0	393	0	0
23.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9	5	6	869	816	94
24.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385	25	1	4,504	2,375	53
25.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66	2	0	1,062	112	11
26.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691	3	0	1,209	211	17
27.제1차 금속산업	1,419	13	1	2,665	1,377	52
28.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613	1	0	917	76	8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50	3	0	1,687	123	7
30.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490	1	0	224	11	5
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479	4	0	1,036	288	28
32.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469	14	0	19,025	15,145	80
33.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94	1	0	444	96	22
3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13	11	0	6,537	3,499	55
35.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27	8	1	1,815	1,315	72
36.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1,429	0	0	182	0	0
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00	0	0	66	0	0
합 계	39,975	107	0	46,113	26,371	57

자료: 한신평 DB, 2005년 기준.

〈표 5-11〉 산자부의 비제조업 표본 커버리지 추정결과

(단위: 개수, 백만원, %)

비제조업 KSIC기준	사업체수			유형고정자산증가액		
	전체	산자부	비중	전체	산자부	비중
40.전기, 가스 및 증기업	81	10	12	8,478	7,241	85
41.수도사업	2	0	0	3	0	0
45.종합 건설업	5,044	18	0	9,226	4,878	53
46.전문직별 공사업	7,758	0	0	436	0	0
50.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943	1	0	223	42	19
51.도매 및 상품 중개업	12,202	16	0	1,819	445	24
52.소매업(자동차 제외)	911	11	1	3,373	2,568	76
55.숙박 및 음식점업	810	1	0	1,114	114	10
60.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96	2	0	2,203	412	19
61.수상 운송업	204	7	3	672	416	62
62.항공 운송업	19	2	11	376	375	100
63.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397	2	0	3,501	21	1
64.통신업	219	6	3	4,061	3,660	90
65.금융업	40	2	5	38	35	91
66.보험 및 연금업	7	1	14	10	0	0
67.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23	0	0	40	0	0
70.부동산업	3,007	3	0	6,551	3,688	56
71.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149	0	0	299	0	0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3,924	3	0	908	247	27
73.연구 및 개발업	239	0	0	44	0	0
7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10	2	0	517	78	15
75.사업지원 서비스업	1,073	1	0	1,009	579	57
76.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0	0	79	0	0
80.교육 서비스업	255	0	0	151	0	0
85.보건업	901	0	0	190	0	0
86.사회복지사업	11	0	0	0	0	0
87.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557	1	0	949	88	9
88.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427	2	0	2,150	102	5
90.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755	0	0	648	0	0
91.회원 단체	34	1	3	248	90	36
92.수리업	366	0	0	17	0	0
93.기타 서비스업	276	1	0	193	21	11
합 계	45,156	93	0	49,524	25,100	51

자료: 한신평 DB(2005년 기준).

<표 5-10>에서 보듯이 제조업의 경우 섬유, 의복, 가죽, 목재, 출판 관련 업종 등은 표본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다른 업종의 경우도 상당부분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경련의 600대 기업 표본보다 훨씬 더 적은 200대 기업의 선정에 기인하여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하위기업들보다 규모면에서 상당히 크다. 그로 인해 특정 연도에 200대 순위 밖으로 표본이 밀려나 누락되는 경우 해당 전년도와 대비한 설비투자 변동폭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전기·가스 및 증기업, 항공운송업, 통신업, 금융업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있는데, 산업분류상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를 산업중분류 및 종사자규모별로 층화단순임의추출법(Stratified Simple Random Sampling)⁶⁾에 의하여 약 3,070개의 표본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소기업은 5~49인 이하, 중기업은 50~299인 이하로 정하고 조사대상 제조업 23개 업종 가운데 담배제조업(16),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제조업(23),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37)은 제외하고 있다.

<표 5-12>는 2005년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통하여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추정해 본 것이다. 광업제조업 전체 사업체 중 대부분인 약 92.4%는 소기업, 약 7%는 중기업에 해당되고 대기업은 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표본을 선정하여 설비투자 향방을 포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기업은행의 표본업체수는 적정표본수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2.6%(=3,070/(108,907+8,249))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지원 등 정책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보다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선정이 대폭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6) 모집단을 먼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여러 개의 층으로 분할한 후, 각 층별로 단순임의 추출법을 적용시켜 표본을 얻는 방법.

〈표 5-12〉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중소기업비 비중

(단위: 개수, 백만원, %)

	전체	5-49인이하 소기업	분포	비중	50-299인 중기업	분포	비중
광업·제조업	117,818	108,907	100.0	92.4	8,249	100.0	7.0
광업(10~12)	613	576	0.5	94.0	33	0.4	5.4
10.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61	49	0.0	80.3	8	0.1	13.1
11.금속 광업	4	3	0.0	75.0	1	0.0	25.0
12.비금속 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548	524	0.5	95.6	24	0.3	4.4
제조업(15~37)	117,205	108,331	99.5	92.4	8,216	99.6	7.0
15.음·식료품 제조업	8,389	7,681	7.1	91.6	664	8.0	7.9
16.담배 제조업	12	1	0.0	8.3	7	0.1	58.3
17.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8,898	8,381	7.7	94.2	501	6.1	5.6
18.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8,386	8,103	7.4	96.6	263	3.2	3.1
19.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93	1,912	1.8	95.9	76	0.9	3.8
20.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76	2,032	1.9	97.9	41	0.5	2.0
21.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066	2,853	2.6	93.1	196	2.4	6.4
22.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147	5,883	5.4	95.7	241	2.9	3.9
23.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17	101	0.1	86.3	10	0.1	8.5
24.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060	3,463	3.2	85.3	554	6.7	13.6
25.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036	8,314	7.6	92.0	689	8.4	7.6
26.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161	3,912	3.6	94.0	224	2.7	5.4
27.제1차 금속산업	2,923	2,527	2.3	86.5	359	4.4	12.3
28.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5,012	14,318	13.1	95.4	673	8.2	4.5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057	15,074	13.8	93.9	921	11.2	5.7
30.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801	674	0.6	84.1	122	1.5	15.2
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6,226	5,696	5.2	91.5	491	6.0	7.9
32.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5,111	4,147	3.8	81.1	817	9.9	16.0
33.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075	2,881	2.6	93.7	185	2.2	6.0
3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848	3,087	2.8	80.2	685	8.3	17.8
35.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64	759	0.7	71.3	288	3.5	27.1
36.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6,278	6,077	5.6	96.8	195	2.4	3.1
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69	455	0.4	97.0	14	0.2	3.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05.

지금까지 각 기관의 표본선정기준에 따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조사기관별 일부는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설비투자 정보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표본선정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표 5-13>은 조사기관별로 표본선정기준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표 5-13> 조사기관별 표본선정기준

	산업은행	전경련	산자부	기업은행
대상	광업제조업통계조사 한국신용평가정보DB	한국신용평가정보DB 매출액 상위 600대기업	한국신용평가정보DB 매출액 상위 200대기업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5인 이상-300인 미만
표본추출 방식	절사표본추출(cut-off) 방식, 업종별 유형고 정자산증가액 70% 대표	-	-	층화단순임의추출 법(Stratified Simple Random Sample)
표본수	약 3,600개	약 600개	약 200개	약 3,000개

라. 작성기관별 설비투자 관련 조사항목

이번에는 <표 5-14>를 통해 각 조사기관별 조사항목의 차이를 살펴 보도록 하자. 설비투자 조사항목은 유형별로 크게 자산별, 목적별, 조달별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세부 자산별, 목적별, 조달별, 설비투자금액을 모두 조사하고 있는 반면, 전경련과 산자부는 세부자산별 조

<표 5-14> 조사기관별 설비투자 조사항목 유무

		산업은행	전경련	산자부	기업은행
설비투자총액		○	○	○	○
금액	세부 자산별	○	×	×	○
	세부 목적별	○	○	○	×
	세부 조달별	○	○	○	○
기타	투자환경조사	○	○	○	○
	애로사항 및 지원사항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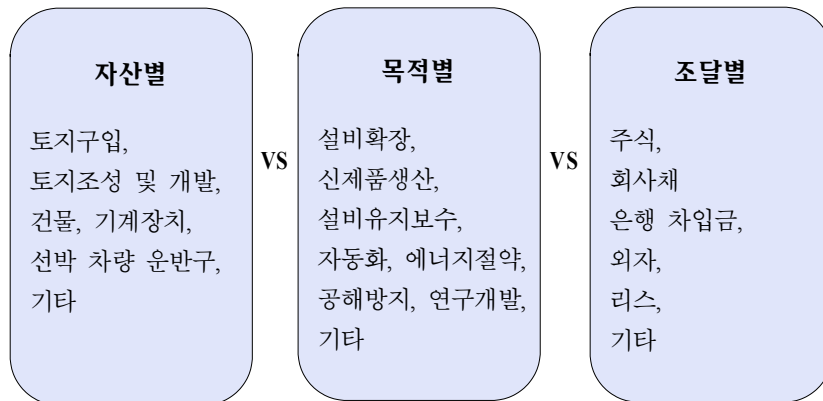
사, 기업은행은 세부목적별 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투자환경 조사 및 애로사항 등은 각 기관별로 오픈형 혹은 선택형 문항으로 조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산별 형태는 토지구입, 토지조성 및 개발, 건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기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 93SNA 기준에 따르면 토지구입부문은 비생산유형자산으로, 토지조성 및 개발과 건물은 건설투자로 간주되어 엄밀히 설비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다.

목적별 설비투자를 살펴보면 설비확장, 신제품생산, 설비유지보수 등으로 분류되어 조사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항목별 정의가 제시되어야 하는 데 비해 개략적인 설명에만 그쳐 사업체로부터 응답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답변 자체에서도 대표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은 부분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조사작성기관 등도 목적별 설비투자 항목들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조달별 분류는 비교적 다른 항목들에 비해 기관별로 개념상이나 분류기준이 명확하고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3] 유형별 조사항목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기관별 조사항목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4개 기관 중 자산별로 비교가 가능한 곳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다. <표 5-15>를 통해 두 기관의 조사표를 토대로 자산별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고 설명해 놓았는지 살펴보자.

<표 5-15> 자산별 설비투자 조사항목

	토지	건물 및 구조물	기계장치	차량, 선박, 운반구	기타
산업은행	- 구입비용과 개량조성비용을 구분하여 조사 - 투기목적용은 제외	-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함께 승강기, 냉온방장치, 조명, 통풍장치 등 부속시설 포함 - 건설업체의 판매용 주택 건설은 제외	- 설치비, 등기비 등 기타 부대비용도 포함 - 건설중장비도 기계장치로 간주	- 설명없음	- 공구, 기구, 비품, 구축물 등 - 건설가계정 제외 * 구축물은 도로, 교량, 철도, 담장, 굴뚝, 저장탱크, 조선탄, 송유관, 우물, 정원 등을 말함
기업은행	- 공장용지 등		- 리스 기계 포함	차량, 선박, 운반구 항목을 기타와 포함하여 조사	

자료: 산업은행,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 조사표.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전망」 조사표.

조사항목 중 토지, 건물 및 구조물, 기타 등을 제외하고 설비투자로 볼 수 있는 기계장치, 차량·선박·운반구는 두 기관 모두 유사한 포괄 범위를 가지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의 경우 차량·선박·운반구와 기타를 함께 묶어서 조사하고 있어 산업은행과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기업은행은 표본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 차량·선박·운반구 등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여 기타와 함께 묶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항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타 항목 중 차량·선박·운반구와 기타를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들 조사항목을 직접 수치를 통해 비교해 보면 <표 5-16>과 같다. 산업은행의 경우 엄밀한 설비투자 금액은 약 55조 7,400억원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73.6%만이 해당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의 조사로 3,200억원 규모가 설비투자금액으로 파악이 되며 전체 투자의 55.5% 수준이다. 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설비투자는 93SNA 기준의 포괄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산업은행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설비투자 규모와 수치뿐만이 아닌 내용면에서도 크게 차이를 보인다.

〈표 5-16〉 자산형태별 설비투자 금액 및 비중 비교

(단위: 억원, %)

	토지	건물 및 구조물	기계장치 (A)	차량, 선박, 운반구 (B)	기타 (B)	합계	(A)+(B)
산업은행	82,210 (10.8)	118,242 (15.6)	436,616 (57.6)	34,078 (4.5)	86,734 (11.4)	757,880 (100.0)	557,428 (73.6)
기업은행	1,310 (22.4)	1,295 (22.1)	2,626 (44.9)	619 (10.6)		5,849 (100.0)	3,245 (55.5)

- 주: 1) 2005년도.
 2) 설비투자 재산정 = (A)+(B).
 3) 기업은행의 경우는 품질진단 자료 재인용.

〈표 5-17〉 목적별 설비투자 항목 비교

기관	항 목												
	신제품 생산	설비의 확장	국내	수출	설비의 유지보수	자동화	에너지 절약	공해 방지	연구 개발	기타			
산업은행	신제품 생산	설비의 확장	×	수출	설비의 유지보수	자동화	에너지 절약	공해 방지	연구 개발	정보화 투자	물류 시설 투자	타업종 진출	기타
전경련	신제품 생산	기존 시설 확장	×	수출	설비유지·보수	자동화 합리화	환경 관련 투자	연구 개발 (R&D)	정보화 투자	물류 시설 투자	타업종 진출	기타	
산자부	신제품 생산	기존 설비 확장	×	수출	설비유지·보수	자동화	에너지절약·공해방지	연구 개발 설비 투자	정보화	기타			

다음으로 목적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신제품생산, 설비의 확장, 설비의 유지보수는 기관별로 동일한 반면 그 외 항목은 정의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항목 용어 중에 자동화, 합리화, 정보화, 에너지절약, 공해방지 등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명확

<표 5-18> 투자촉진 관련 정부의 세제정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용	방법
투자 촉진 조세 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 등의 공정개선 관련 연구비용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대기환경, 소음진동,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질환경, 폐기물관리, 건설폐기물, 자원절약과 재활용, 해양오염, 청정생산시설, 유통산업합리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산업안전, 광산보안, 비상대비, 축산 식품관리,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해외자원 설비 등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2조의2)	에너지절약형 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절수설비 및 기기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제23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등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5조)	사회간접자본 투자 관련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감가상각특례자산 관련	
중소 기업 투자 관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취득 등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조의2)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 등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히 구분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경련의 경우 다른 기관과는 구별되게 물류시설투자와 타업종 진출 등의 항목이 조사되고 있다. 기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항목간의 조정 및 개념 정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R&D 투자 등 다양한 범위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문제점만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목적별 투자는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일부는 목적별 투자항목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별로 해당 목적별 설비투자 조사와 세제혜택에 대한 정보를 함께 조사응답 기업에게 제공시에 응답률을 높이는 긍정적 유인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18>은 목적별 설비투자 조사항목과 관련한 정부의 세제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세부조달별 투자항목은 4개 기관에서 모두 조사되고 있다.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19>와 같다. 설비투자를 위한 조달자금을 크게 외부자금과 내부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금융기관 중 당행의 조달자금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마. 작성기관별 조사기간과 공표시점

조사기관은 모두 반기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시점은 상반기의 경우 6월 30일 기준, 하반기의 경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조사하는 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반기 실적조사의 경우 산업은행은 10월, 전경련은 8월, 산자부 6월, 기업은행 7월에 행해지고 있다. 하반기는 산업은행 2월, 전경련 12월, 산자부 12월, 기업은행 1월에 조사되고 있다. 이들 기간 선정은 응답업체의 조사가능시점을 고려하기보다는 각 작성기관의 업무일정 차이로 인한 것으로 설비투자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조사의 정확성도 상당히 약화되어 작성기관 당국도 공표시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발표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 예로 기업은행 담당자는 1월 조사와 7월 조사 간에 같은 시점의 설비투자 비율이 20~3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표 5-19〉 조달별 설비투자 항목 비교

	외부자금						내부 자금
	주식	회사채	금융기관	외자	리스	기타	
산업 은행			원화, 외화 차입금을 산 업은행과 타 행으로 구분 하여 조사	합작투자, 상 업차관, 기타 로 구분	금융리스를 외화설비리 스와 원화설 비리스로 구 분하여 조사	외부자금 외 보험회사, 상호 신용금고, 단자 회사 등으로 부터 차입금 및 시세 등을 말함	
전경련			은행차입과 제2금융권 으로 구분하 여 조사	해외증권 및 해외차입항 목으로 조사			
산자부	주식 발행	회사채 발행	은행차입과 제2금융권 차입, 리스로 구분하여 조사	해외증권발행 및 차입	제2금융권 차입과 함께 하여 조사	기타	내부 유보 자금
기업 은행	증자 및 회사채		차입금(차입 금중 은행)				내부 자금

이는 조사대상인 중소기업 표본의 대부분이 자본금 70억원 미만으로 회계기준상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법인세 납부기간인 3월 말 이후에야 어느 정도 정확한 설비투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조사기간이 기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기간이 수행가능한 조사가능시점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국민계정이나 추계통계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 조사 방안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5-20〉 작성기관별 투자관련 조사통계 현황 요약

	산업은행	전경련	산자부	기업은행
통계명	주요기업의 설비 투자계획조사	기업시설투자동향 조사	200대 주요기업 설비투자계획조사	중소제조업설비 투자전망조사
최초 실시연도	1965년	1975년	1998년	1983년
목적	민간기업의 설비 투자 실적 및 계획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경기변동의 선행 지표가 되는 민간 부문의 시설투자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200대 기업의 설비 투자계획을 조사,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를 부문별로 조사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대상	광업제조업통계 조사보고서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한국신용평가DB	전년기준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24개 주요 업종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광업제조업통계 조사 23개 업종에서 일부 제외한 종사자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	약 3,600개	약 600개	약 200개	약 3,000개
방법	우편, 전화, FAX, 면접조사	전화, FAX조사	우편, 전화조사	면접, FAX, 전화조사
조사주기	반기	반기	반기	반기
조사기간	10.1~10.31	8.1~8.30	6.1~6.30	7.1~7.20
	2.1~2.28	12.1~12.30	12.1~12.30	1.1~1.20
최근 발표시점	2007.1.17. (06년 하반기)	×	2006.9.7.	2006.8.16
	2007.4.5. (07년 상반기)	2007.2.2.	2007.1.23.	×
조사원	임시조사원	임시조사원	공무원	임시조사원

제3절 해외사례

그동안 설비투자관련 조사통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설비투자 추계시 기업서베이를 활용하는 국가들은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있는데, 비교적 관련 자료가 잘 정비되어 있는 호주와 일본의 경우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1. 호주의 투자관련 조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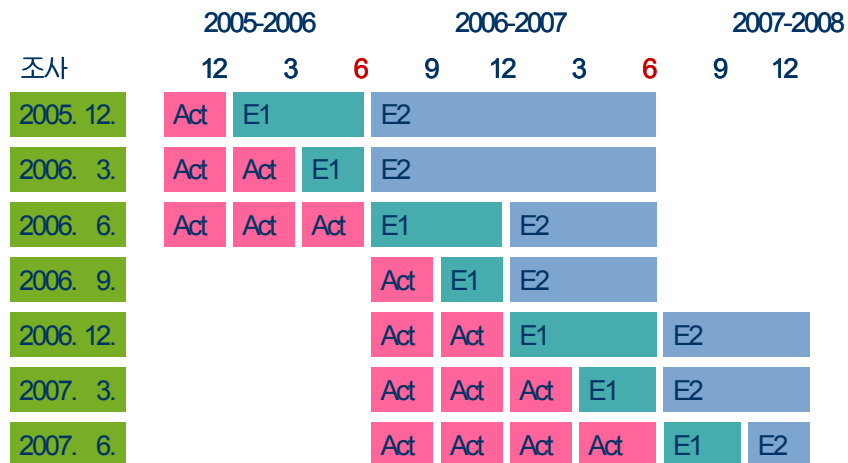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유사한 설비투자관련 조사통계로는 호주통계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간신규자본지출조사(Survey of New Capital Expenditure)를 들 수 있다. 호주는 조사목적에서부터 국민계정 지출부문 중 투자관련 추계를 위함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기업의 설비투자 조사와 국민계정상의 추계통계 간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 비해 호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행 조사통계 간 기관별로 발표되는 통계의 불일치가 상당함을 볼 때 호주의 경우처럼 국가통계기관 차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이를 실제 거시측면의 추계통계에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일관성, 적절성, 효율성 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호주는 조사 주기별로 실적치와 계획치를 조사하여 이를 다시 이미 과거에 조사한 공표자료와 비교한 결과를 함께 발표하고 있다. [그림 5-4]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호주는 2005년 12월에 당분기 실적과 단기계획 E1과 장기계획 E2를 조사하고, 2006년 3월에 다시 전분기 당분기의 실적과 장단기 계획 E1, E2를 차례대로 조사한다. 이 자료들이 축적되어 2007년 6월의 경우는 2005년 12월에 E2값을 실제값으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 계획치와 실적치 간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비투자의 규모나 증감률을 계속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실제수치와도 비교를 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

〈표 5-21〉 호주의 분기별 신규자본지출조사 개요

	내 용
포괄범위	호주의 ABS(Australian Business Register)를 부여받은 기업체 (제외: 농림어업, 정부, 교육, 보건 및 공중서비스, 기타서비스)
조사권한	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
수집방법	우편조사(회수율: 85%)
보도시기	해당분기 8~9주 후
조사내용	신규자본지출실적치, 단기자본지출계획치, 장기자본지출계획치
조사규모	산업별, 지역별, 고용자별 층화추출된 약 7,000개 기업
항목분류	Part A: 운수장비, 플랜트, 설비, 가구 자산 Part B: 컴퓨터 소프트웨어 Part C: 신규건물 및 기타구축물
기타	계절조정 시행

[그림 5-4] 호주의 조사주기 및 자료비교 체계



주: Act: 실적, E1: 단기계획, E2: 장기계획.

다. 이는 우리의 경우 해당시점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반영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설비투자 관련 장비를 6개로 분류하여 명시해 놓고 있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산업분류코드체계인 ANZSIC(Australia and New Zealand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코드를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표 5-22>와 같이 범주화해 놓았다. 산업용 기계장비는 각 산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8종류로 다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에 해당되는 장비들을 상세히 제시해 놓았다. 이는 포괄범위 세부설명에 단순열거식으로 일부만을 언급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표 5-22> 호주의 6대 장비 구분

1. 육로 수송	2. 기타 운송	3. 산업용 기계장비	4.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5. 전자 전기 기계 및 통신장비	6. 기타 플랜트 장비
버스, 캐러밴 자동차, 트레일러, 트럭	항공기, 보트, 헬기, 오토바이, 여객기, 배	농업용기계, 광업용기계, 음식처리기계, 기계 부품 및 부품, 운반처리기계, 펌프 및 압축기, 상업용 히터 및 냉방기기, 산업용 기기 및 장치	컴퓨터, 행인쇄기, 브라운관 디스플레이 장치	사무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전자기기, 가전제품, 전기케이블, 배터리, 전등, 전기장치	사진광학기기, 의약 및 수술용기기, 전문과학기기

2. 일본의 투자관련 조사통계⁷⁾

일본의 법인기업통계조사는 일본 재무성 산하 재무총합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제조업, 비제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조사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자본금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10억엔 이상 기업(5,638개), 자본금이 1억엔에서 10억엔 사이인 기업(9,461개) 및 자본금이 1,000만엔에서 1억엔 사이인 기업(9,345개)에 대

7) 통계청, 「투자분야 품질진단보고서」, 2006.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율은 78.8%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분기별 조사와 연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간에서는 유형고정자산(토지 제외) 증가액, 소프트웨어 증가액, 감가상각비가 조사된다. 분기별로는 고정자산증가액,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정지조성비 등), 그 외의 유형고정자산, 건설가계정, 무형고정자산 증가액이 조사된다. 2001년 하반기부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비 가운데, 무형고정자산에 신규로 계상된 투자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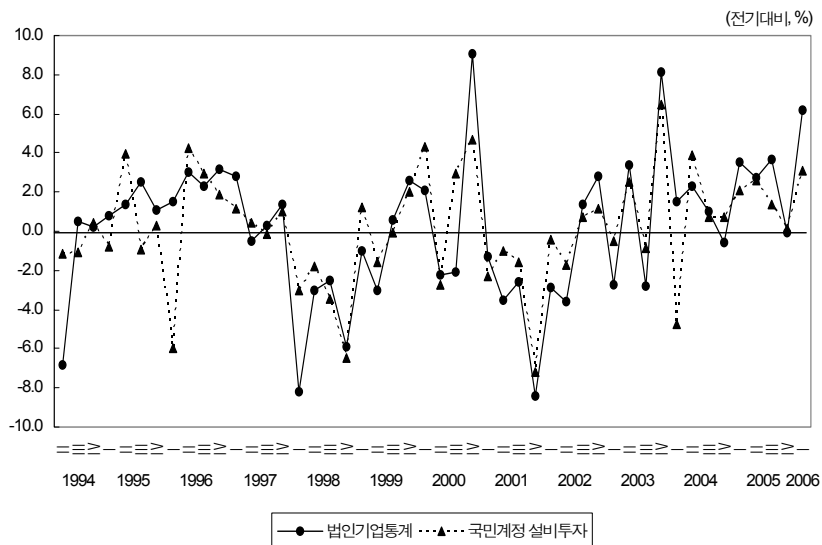
〈표 5-23〉 일본의 법인기업통계조사 개요

	내 용
포괄범위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영리법인
조사권한	일본 재무성 산하 재무총합정책연구소(지정통계 제110호)
수집방법	우편조사에서 온라인조사(FABNET)로 전환중
보도시기	해당분기 8~9주 후
조사내용	연간: 유형고정자산(토지제외)증가액, 무형고정자산(소프트웨어 증가액), 감가상각비 분기: 고정자산증가액, 토지, 그 외 유형고정자산, 건설가계정, 무형 고정자산의 신설
조사규모	- 제조업 비제조업을 모두 포함하여 규모별로 조사 실시 - 자본금별 층별무작위 추출한 약 24,444기업 (자본금 10억엔 이상은 전수)

최근 일본은 조사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식명칭은 FABNET(Network System of Financial Statements Statistics of Corporation)로 현재 모두 인터넷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며 서면조사방법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자료의 집계를 전산화시켜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 서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일본의 온라인방식 활용은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림 5-5]를 통해서 살펴보면 수요측면의 법인기업통계와 공급측면의 국민계정 설비투자 간 전기대비 증가율이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분기별 조사를 하고 있고 1997년 이후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공급측면의 국민계정 설비투자와 정합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차원의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급측면의 설비투자 통계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5] 일본 수요·공급 측면의 설비투자 비교(분기자료)



자료: 통계청, 「투자분야 품질진단 보고서」, 2006.

제4절 투자관련 조사통계 개선방안

설비투자 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 수요측면 조사통계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통계청으로의 이관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조사통계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단일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그 주체로서는 전문인력, 경험 및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는 통계청이 적절하다. 앞에서 살펴본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국가차원의 통계작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선방안을 위해 기존조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신규조사 개발 방안을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존조사 활용방안

이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동태조사를 이용하여 분기별로 설비투자관련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현 동태조사의 포괄범위, 표본사업체수, 조사시기 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24>와 같다.

<표 5-24> 통계청 동태조사 현황

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모집단 (수)	표본 사업체수	조사시기
광공업 동태조사	C광업, D제조업, E전기가스업 (수도업 제외)		7,954	매익월 1~19일
도소매업 동태조사	G도소매		5,152	매익월 1~17일
서비스업 동태조사	H숙박음식업, I운수업, J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O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917,188)	4,900	매익월 1~20일
합 계			18,006	

주: 2005년 기준. 제외업종: F건설업,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S가사서비스.

기존 동태조사를 활용하여 투자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면, 우선 해당항목 추가만으로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단, 조사주기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투자변수는 상당히 불안정한 특성이 있으므로

월별로 시행하기보다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분기별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기존 동태조사의 생산측면 항목과 투자항목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다음의 <표 5-25>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기존 동태조사의 생산동향 측면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지출동향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면 수요측면의 정보를 활용하여 정책분석 등 통계 활용 면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효율성 측면에서도 설비투자 조사통계를 위한 신규개발보다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표 5-25> 현 통계청 동태조사의 조사항목

조사	주요 항목
광공업동태조사	- 제품의 생산·출하·재고에 관한 사항 - 고용 및 조업사항
도소매업동태조사	- 월간판매액, 상품판매액 - 업종별 특성항목
서비스업동태조사	- 월간 영업일수, 매출액 - 업종별 특성항목

반면 이러한 장점들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는 조사 목적이 개별 동태조사별로 상이하고 각 조사마다 표본비율이 차이가 나는 점, 조사별로 표본개편기간이 상이하여 편차가 발생하는 것, 현행조사에 응답부담 등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공업 동태조사, 도소매업동태조사, 서비스업동태조사 간에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당부분 담당업무 부서들 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업체별로 설비투자관련 통계조사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투자조사시점에 상당한 응답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외부작성기관의 경우 모두 조사시기가 상이하여 실제 정확한 통계치 응답과 다르게 허수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작성자와 조사응답업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시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업체별 통계조사에 응답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으로는 결산이 끝나는 시점인 해당분기 익월 중순경과 해당분기 익월 말로 보인다. 따라서 분기별 조사를 가정하면 기존 동태조사인 광공업동태조사, 도소매업동태조사, 서비스업동태조사를 이용하여 해당분기 익월 중순에서 말일 사이에 조사가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동태조사가 월별로 추진되는 만큼 항목추가로 응답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항목을 다양하게 나열하는 식보다는 기계류와 운수장비 설비투자 금액 조사로만 한정시켜 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 토지구입, 건물, 구축물 등의 항목은 시의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연간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2. 신규조사 개발

또 다른 방안은 기존 설비투자관련 조사통계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일주체로서 신규조사를 개발하는 것이다. 모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이하 사기초)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사업체수는 2005년에 약 3,006,0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대기업은 4,000개 내외이고 나머지 99.9%가 중소기업 형태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체수를 보면 중소기업체가 훨씬 많지만 매출액면에서는 전체 70~80%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는 수요측면의 설비투자관련 통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통계개선 및 정비방안이 목적이며,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의 경우 다양한 정책의 활용 면에서 중소기업과 비제조업관련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을 반영한 표본을 설계하여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사기초통계를 통해서도 설비투자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 및 명부로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연간조사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 중 2005년 기준 유형고정자산 세부항목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

수업통계조사를 통해 설비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분포하고 있는 사업체수와 유형고정자산증가액은 <표 5-27>에 나타나듯이 KSIC 대분류 기준에 따라 광업제조업이 유형고정자산 증가액 중 설비투자비중이 72%로 가장 높고, 도소매서비스업은 20.7%, 건설업은 32.5%, 운수업은 5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5-26>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수

(단위: 개, %)

산업분류	전체 (A+B+C)	대기업 (A)	중 소 기 업		
			중기업 (B)	소기업 (C)	소계 (B+C)
전산업	3,006,053 (100.0)	4,160 (0.1)	91,672 (3.0)	2,910,221 (96.9)	3,001,893 (99.9)

주: () 안은 각 연도별 전체에 대한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2006.12)」에서 재편·가공.

<표 5-27> 전체 산업 포괄범위 및 조사구분

(단위: 개수, 백만원, %)

조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사업체수	유형고정자산증가(A)	기계류+운수장비증가(B)	(B)/(A)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C광업, D제조업,	114,698	71,389,197	51,399,479	72.0
	E전기가스수도	1,432	-	-	-
서비스업 총조사	G도소매, H숙박음식업, J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O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82,957	46,511,177	9,620,609	20.7
건설업 통계조사	F건설업	66,619	3,232,822	1,051,965	32.5
운수업 통계조사	I운수업	329,522	10,114,862	5,088,035	50.3
합계		593,796	131,248,058	67,160,088	51.2

주: 2005년 기준(제외: N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S가사서비스업, T국제및기타외국기관).

제5절 결론 및 향후 연구의 방향

투자는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변수이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완전한 투자통계는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통계청은 국가통계기관으로서 정책적으로 기존 투자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설비투자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추계 통계가 안고 있는 투자정보의 한계를 조사통계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조사통계들 상당 부분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은 조사기관의 표본 선정 부분이다. 제조업분야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비제조업분야는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 외감기업 대상의 자료를 모집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 산업별, 규모별, 종사자수별 특징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체 부문의 표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통계청으로의 이관 등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단계별로 점차적인 진행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두 가지 설비투자 조사방법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추진관련 논의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와 함께 세부적인 논의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통계개발은 향후 설비투자 통계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 산업별, 기업규모별, 종사자규모별로 다각적인 투자패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매출액 등 지표와 함께 연계하여 정책 및 연구 분석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포함되지 못한 중소기업체와 중소서비스업 등의 통계도 외 부작성기관에 비해 비교적 포착이 잘 되므로 양질의 설비투자 통계로 개선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물론 통계조사를 위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업무의 부담과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금감원의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등 추가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계정 설비투자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만큼 통계청의 설비투자 조사통계 시행과의 연계는 다소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야 할 것이며, 통계작성기관으로서 기존의 투가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은경제연구소,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전망」, 각호.
- 산업은행,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 각호.
- 산업은행(2006), 「한국의 설비투자 외환위기 이후의 동향과 전망」.
- 서울지방통계청(2006), 「경제통계조사 업무편람」.
- 오승곤·김성환(2006), 「국내 설비투자 결정요인의 변화분석」, 산은경제연구소.
- 이시욱(2006), 「성장동력으로서의 설비투자」, 한국개발연구원.
- 임경목(2005), 「기업의 설비투자행태 변화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진경련, 「시설투자 실적 및 계획」, 각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중앙회(2006), 「중소기업실태조사」, 2005년 기준.
- 중소기업청(2007), 「중소기업관련 통계」.
- 통계청(2003), 「호주통계국 출장 결과보고」, 통계분석과.
- 통계청(2005),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통계청(2006), 「투자분야 품질진단 보고서」.
- 한국은행, 「1993국민계정체계」.
- 한국은행(2006), 「분기 국민소득 추계 편람」.
- Bajada, Christopher(2000), "An Examination of the Statistical Discrepancy and Private Investment Expenditure",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Working Paper No.103.
- Becker, Randy, John Haltiwanger et al.(2005), "Micro and Macro Data: Integration: The Case of Capital".

< 부 록 >

보론1 : 추계통계 vs 통계청

1. 설비투자추계지수(통계청)와 설비투자(한국은행) 지표 간 비교

<공통점>

- ▶ 재화흐름법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이는 투자를 자본재의 총공급에서 중간수요, 소비, 수출 및 재고변동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차이점>

- ▶ 포괄범위 :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자본재로 분류되는 73개 부문(2000년 산업연관표의 404개 상품기준)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통계청 설비투자추계지수는 선박 등 10개* 부문을 제외한 63개 부문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 * 강철제 선박, 기타 선박, 선철, 동괴, 알루미늄괴, 연 및 아연괴, 기타 비철금속괴, 낙농, 기타 축산, 화훼작물
- ▶ 기초통계 : 한국은행은 설비투자 추계시 국제수지 기준의 수출입액을 사용하는 반면, 통계청은 소유권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입액을 사용하는 등,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계자료에 차이가 있다.
- ▶ 가격평가기준 :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통계청은 거래 및 운송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가격으로 평가된다.
- ▶ 실질화기준 : 명목 설비투자를 실질화하는 기준으로 한국은행은 디플레이터를 이용하는 반면, 통계청은 물량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보론 2 : 공급측면의 조사통계

1. 기계수주통계조사(통계청)

- ▶ 조사목적 : 설비용기계류를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체의 수주액을 수요자 및 기계종류별로 매일 조사하여 국내 설비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정책 및 기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조립금속제품(D28) ~ 기타운송장비(D35) 가운데 설비용기계류제조업
 - 매년 최근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해당 연도 총생산액의 65%에 해당하는 업체 유의 선정
- ▶ 조사단위 : 영업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사중심의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일공장의 경우에는 사업체(공장) 단위 조사

보론 3 : 설비투자 관련 주요 용어 해설

- ▶ 유형자산 :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간 사용되는 형태가 있는 자산을 의미. 토지, 건물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선박, 건설 중인 자산,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분류
 - 토지 :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 건물 : 건물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하여 주위를 기둥으로 구성하고 벽, 지붕으로 외계와 단절된 구성물로 사람의 거주 및 사용, 물건의 저장, 제조 또는 작업장 등의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 본체
 - 구축물 : 토지에 정착하여 시설된 일체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로 교통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교통시설과 발전 및 송배전시설, 수해의 방지와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비된 수리·치수 및 급수 시설
 -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송유관, 조선대, 궤도 등
 - 기계장치 : 기계는 동력을 받아서 외부의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는 설비의 장치이며, 장치는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여 이것을 변질, 변형, 분해, 운동시키는 설비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 요(窯), 노(爐) 등 포함
- 선박, 차량, 운반구 : 해상운반구(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 육상운반구(자동차, 철도차량 등), 항공기·헬리콥터 등
- 기타(공구, 비품 등) : 공구와 기구란 주로 기계 또는 장치에 부착시키거나, 공장의 현장작업에 손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공구)과 주로 그 자신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장의 현장작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기구)
 -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
- 건설 중인 자산 : 업무용 유형자산의 건설 및 구입을 위해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시 처리하는 계정

보론 4 : 조사표 작성 예시(안)



광공업동태조사표(안)(I)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사업체 고유번호	* 행정구역번호	* 산업분류	* 담당자ID	(200□년 □□월분)
				1.단월회계 2.단월조정 3.전월회계

귀사업체는 통계법 제 12조에 따라 통계작성의 자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러 이 조사표에 기재는 내법인 통계법 제 13, 14조에 의해 통계작성에 대한 시정권 그 밖의 조치 없습니다.

① 생산·생산·출력·재고

* 품목번호	1			2			3			
품 목 명										
단 위	금액(백만원)			금액(백만원)			금액(백만원)			
생 산	자체생산									
	위탁									
	수탁									
구 입										
재 부 입										
출 하	내 수									
	수 출									
	타공정출하 및 기타출하									
과 부 족										
월 말 재 고										
비 고 사 항										

작성기관 : 통계청	
사업명	_____
업종명	_____
연도명()	_____
월도명	_____

② 고용 및 조업상황

종사 자수	상용직				영
	임시직				명
조 업 일 수					일
1인당근조업시간					시간
1인당근대당환수					교대
고용 및 조업상황 비교사항					

① 유역자산총가액	금액(백만원)
기계·장비	
토·건물·요	
연락·차량·운반구	
기타(공구·기구·	
비품)	
인물·구축물	
토지 구입	
조사담당자 :	(인)

주: 통계청 조사표 양식을 참조하여 추가 구성.

【작성 시 유의 사항】								
<p>① 이 조사는 국내의 농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 부문의 경제동향을 파악하여 경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p> <p>②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p> <p>③ 신규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반드시 통계청 조사직원에게 지정품목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④ 사업체의 휴·폐업, 이관, 합병, 분사(유사) 등 조직·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통계청 조사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p> <p>⑤ 응답지표서는 같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통계청 조사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용어해설】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생 산</td> <td>자체생산</td> <td>· 사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와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td> </tr> <tr> <td>위탁</td> <td>·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생산</td> </tr> <tr> <td>수탁</td> <td>·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td> </tr> </table>	생 산	자체생산	· 사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와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위탁	·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생산	수탁	·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	
생 산		자체생산	· 사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와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위탁	·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생산					
	수탁	·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						
구입	·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 · 동일기업내의 다른 공장에서 입고하거나 밀려온 제품(※구입만매 출하, 재고에서 구분가능하면 조사 제외)							
재무입	·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공정에 원재료, 부품, 연료, 촉매제 등으로 소비된 제품 ·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을 위탁 생산업체에 원재료, 연료, 촉매제 등으로 제공한 제품							
출 하	내수	·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을 국내 판매업자, 타 사업체, 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로 출고된 제품 ·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을 다른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수출용 제품의 부품으로 출고된 제품						
	수출	·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을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다른 수출업자를 통해 간접 수출한 제품 ·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을 수반 외국으로 또는 영세경으로 납품한 제품						
의 외	다점점출하 및 기타출하	·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이 통계조사 범위를 생산하는 동일 기업내 다공장으로 출고한 제품 ·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이 선물, 건별, 전시용, 제품표정용, 설비보수용 등으로 출고한 제품						
과 부 족		· 열거처분, 화재, 수해, 도난, 파손, 분실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물품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계산 · 항수금액(잔물재고 + 회계생산 + 구입 - 재무입 - 관물출하 ± 과부족 = 급물재고)에 의한 보정						
물 일 재 고		· 매물일 기준,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의 재고 · 관에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도 포함						
비 고 사 항		· 잔물재고 30%이상 증감하거나 과부족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목적별로 자세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table border="1"> <tr> <td><중간사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휴업, 파업, 생산개시(통단), 설비증설(모수), 내수증가(감소), 수출증가(감소), 수요증가(감소) 대비, 할부 판매, 경쟁력 강화, 수출 촉진, 신기술 도입 등 </td> <td><예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판매실시로 인한 내수증가 - ○○국에 수출주요품으로 강인증설 - 경쟁과고수준유지를 위한 생산속도 </td> </tr> </table>	<중간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휴업, 파업, 생산개시(통단), 설비증설(모수), 내수증가(감소), 수출증가(감소), 수요증가(감소) 대비, 할부 판매, 경쟁력 강화, 수출 촉진, 신기술 도입 등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판매실시로 인한 내수증가 - ○○국에 수출주요품으로 강인증설 - 경쟁과고수준유지를 위한 생산속도 			
<중간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휴업, 파업, 생산개시(통단), 설비증설(모수), 내수증가(감소), 수출증가(감소), 수요증가(감소) 대비, 할부 판매, 경쟁력 강화, 수출 촉진, 신기술 도입 등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판매실시로 인한 내수증가 - ○○국에 수출주요품으로 강인증설 - 경쟁과고수준유지를 위한 생산속도 					
유 형 자 산 증 가 액		· 생산과정에서 1년이상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토지, 건물, 기계류, 연수경비 등)으로 취득한 자산금액						

주: 통계청 조사표 양식을 참조하여 추가 구성.



승인번호
세10123호

도소매업동태조사표안(I)

(200 년 월분)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산업분류	담당자 ID

월간 영업일수 일
 종사자수 ① 상시종사자 명 ② 기타종사자 명
 주요 취급상품명 :
 월간 상품판매액

국내시장액						수출액						합계					
조	교	의	의	의	의	조	교	의	의	의	의	조	교	의	의	의	의
교	의	의	의	의	의	교	의	의	의	의	의	교	의	의	의	의	의

※ 도소매업(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에서의 판매액만 조사
 음식숙박업, 서비스업활동 등 타산업 매출액은 제외

월간 유형자산 증가(금액:백만원)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거대공구, 기구, 비품)	건물·구축물	토지구입	합계

월말 상품재고액 백만원
 비고 (증감 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응답부서 _____ 응답자 _____ 전화번호 (| _____ 조사담당자 _____



주: 통계청 조사표 양식을 참조하여 추가 구성.

◆ 조사표 기입요령 ◆

☞ 조사에 협조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 일반적인 유의사항

- 사업체번호, 사업세명, 산업분류, 담당자 ID는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 관할역과 재고역의 조사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 미인은 사시오입하여 작성합니다.
(예 : 5,876만원인 경우 → 59백만원으로 기입)

II. 조사표 항목별 작성요령

1. 월간 영업일수

- 한달 동안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다더라도 1일로 봄

2. 종사자수

- 임시종사자 : 재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1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경하여 고정급여를 받는 자
(임시직 포함), 상근 일원(사장, 이사, 감사 등) 등
- 기타종사자 : 일당 또는 시간급으로 고용된 자로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 종사자, 일정한 급여없이 수당에 의존하는 외관 영업사원 등

3. 주요 취급상품명

- 주로 취급하는 상품명을 기입하며, 상품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조사대상 월의 판매액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입하되 3가지만 기입

4. 월간 상품판매액

- 한달 간의 상품판매액을 국내시판과 수출로 구분하여 기입
- 매출 무가치서비스,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판매액에서 제외

5. 월간 유형자산증가액

- 생산과정에서 1년이상 반쪽씩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토지, 건물, 기계류, 운수장비 등)으로 취득한 자산

6. 월말 상품재고액

- 월말 현재 판매되지 않고 정도 또는 자기관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의 평가액
- 판매가격이 아닌 원가(구입가격)로 파악

주: 통계청 조사표 양식을 참조하여 추가 구성.



서비스업동태조사표안(1)

(200 년 월분)

통 계 청
이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 이 조사는 서비스업부문의 월간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통계법 제4조, 제8조)으로 정한 지정통계로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체명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담당자 ID	※휴고

(※표시가 있는欄은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Ⅲ 월간 영업일수 (일)

Ⅳ 중서자수 ① 상시중서자 (명) ② 기타중서자 (명)

Ⅴ 사업의 종류 : _____

Ⅵ 월간 매출액(영업수입액)

전 월					금 월				
조	전액	백억	십억	억	조	전액	백억	십억	억

(원)

Ⅶ 월간 유형고정자산 증가액(금액: 백만원)

기계장비	선박차량운반구	기타(공구, 기구, 비용)	건물 구축물	토지구입	합계

(원)

Ⅷ 업종별 특성항목

일련 번호	특성 항목	변동여부		단	문	백	십	억
		①유	②무					
1								
2								

(십)

(억)

※ 업종별 특성항목은 조사 해당 월에 사업의 확장·축소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기입
(변동여부의 변동유무에 대해서는 체크 표시(○)를 반드시 기입)

Ⅸ 비교(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

전월대비 증감사유		전년동월대비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응답자	부서 :	성명 :	전화번호 :	-	
조사담당 (공무원)	소속 : _____ 통계사무소 _____ 출장소	성명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주: 통계청 조사표 양식을 참조하여 추가 구성.

【조사표 작성 요령(숙박 및 음식점용)】

<p>I. 업종개요</p> <p>•숙박업 : 일반대중 또는 특경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p> <p>•음식점업 :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식식당, 카페, 다과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경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됨</p> <p>II. 일반적인 유의사항</p> <p>•이 통계조사의 목적은 서비스업의 월간 매출, 영업활동 등을 파악하여 국가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p> <p>•사업체번호, 산업분류, 담당자 ID, 유고는 통계청에서 기입</p> <p>•유고코드 : 전업(01), 전출(02), 휴업(03), 신규(04), 명칭변경(06), 소재지변경(06), 재영업(07), 사업체폐쇄(08), 기타(09), 합병·합산(11), 산업분류변경(12), 폐업(13)</p> <p>•월간 매출액의 조사단위는 천원이며, 단위 미달은 사사오입하여 작성 (예 : 6,854,856원인 경우 → 6,855천원으로 기입)</p> <p>III. 조사표 항목별 작성 요령</p> <p>㉠월간 영업일수</p> <p>•한달 동안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말하며,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영업하였다도 영업일수에 포함</p> <p>㉡공사자수</p> <p>•매월 말일(예 : 1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공사자수를 기입</p>	<p>•상시종사자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1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받는 자(임시직 포함), 상근 임원(사장, 이사, 감사),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 일정한 급여 없이 수당에 의존하는 영입사원 등</p> <p>•기타종사자 :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 종사자 및 일당 및 시간급으로 고용된 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도 기타종사자로 분류</p> <p>㉢사업의 종류</p> <p>•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기입하며, 제공 서비스(사업의종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매출액(영업수입)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입하되 3가지만 기입</p> <p>㉣월간 매출액(영업수입액)</p> <p>•숙박업의 매출액은 영업수입액이며, 음식점업은 음식물을 판매한 영업수입액(매출부기가지세액 등 간접세는 매출액에서 제외)</p> <p>㉤월간 유형자산증가액</p> <p>•생산과정에서 1년이상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토지, 건물, 기계류, 운수장비 등)으로 취득한 자산</p> <p>㉥업종별 특성항목</p> <p>▶조사 대상 월에 사업의 확장·축소도 변함이 있을 경우에만 조사</p> <p>•업종이 숙박업인 경우 숙박업체에서 영입용으로 사용하는 객실수만을 기입</p> <p>→주인 또는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객실은 제외</p> <p>•업종이 음식점업인 경우 음식점에서 판매용으로 설치한 좌석수를 기입</p> <p>→임인에 좌석은 없고 식탁만 있는 경우에는 몇 인용인지 확인하여 좌석수를 기입</p> <p>→집객용으로 측외에 설치한 식탁도 포함되어 조사</p> <p>㉦비고(매출액 증감사유, 사업체 특이사항 등)</p> <p>•매출액이 전월에 비해 ±20%, 전년동월에 비해 ±30%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와 업종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입</p>
---	--

주: 통계청 조사표 양식을 참조하여 추가 구성.

2/4 분 기 설비투자 조사표(안)
(2007. 2/4분기)

이 조사표는 기계설, 건축설, 전기설, 정보통신설, 기타 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 실적과 투자계획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업 세 명				기 설 규 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설 <input type="checkbox"/> 증설설
주 소	후)			대 출 액	액 단 위
학 설 자	연 락 형 태			F A X 번 호	
	부 서		직 위	성 명	

(단위: 백만원)

분기별 투자 실적 ¹⁾					
		2006. 1/4분기 (2006. 1-3)		2007. 1/4분기 (2007. 1-3)	
		신규회계액	분계영 대체	신규회계액	분계영 대체
토 지 ²⁾					
건 물 ³⁾					
구 축 물 ⁴⁾					
기 계 장 치 ⁵⁾					
차 량 선 박 준 반 구					
공 구 기 구 비 용 ⁶⁾					
건설 중인 자산 ⁷⁾	건물 및 구축물	(-)		(-)	
	기계, 차량, 반구, 소계	(-)		(-)	
	소 계	(-)		(-)	
컴퓨터소프트웨어 ⁸⁾					
합 계					

설비투자 증감내역 및 사유

(단위: 백)

	증 감 내 역	구 성 비 ⁹⁾	
		2006. 1/4분기	2007. 1/4분기
설비투자 증감내역	1) 신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구입		
	2) 기존 설비의 확충		
	3) 기존 설비의 유지 보수		
	4) 생산공정설비 개선 (자동화 등)		
	5) 기타		
주요 증감 사유 ¹⁰⁾			

< 조사표 기입요령 >

- 1) 분기별 투자 실적은 해당분기말 현재 투자(고정자산 취득)를 대상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 ① 조그중 및 기존건물 취득은 포함하지 않음
 - ② 토지(설비투자용), 건물 및 구축물, 설비(기계장치, 차량, 반구 및 공구기구비용 등)를 대상으로 작성
 - ③ 신규회계액에는 대수생비, 건물 임대료에 비용 등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여 기입
 - ④ 분계영 대체는 건설중인자산, 미착기계 등 기계설에 기록되어 있던 자산에 해당분기중에 공사완료 등에 따라 해당계영으로 대체된 금액을 기입하며 건설중인자산 항목에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건물, 기계장치 및 해당계영에는 플러스(+)로 표시하여 분계영대체액 대차가 일치하도록 기재
 - ⑤ 직접 자산의 매각, 처분 및 폐기 등은 결만하지 않음
- 2) 건물 및 구축물: 주택, 기숙사, 합숙소 등 주거용 건물 제외
 다만,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분기중 납부한 분양대금은 건물 신규회계액으로 간주
- 3) 기계장치: 기계장치, 운송설비(트랙터, 호이스트, 기동기 등), 대용량 전장기기, 기타 부속설비 및 등-식물 등
- 4) 공구기구비용: 각종 공구류, 계량용 PC, 사무용기기 및 집기비용 등
- 5) 건설중인자산은 아래의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① 해당분기중 신규 발생액은 신규 취득액에 자산형태별로 표시
 - ② 해당분기중 공사완료 등에 따라 분계영에 대체된 금액은 분계영대체액에 마이너스(-)로 표시 (건물, 기계장치 등 해당 계영의 분계영대체액에는 플러스(+)로 표시)
- 6) 컴퓨터소프트웨어: 입부용 SW, 홈페이지 제작, 시스템통합(SI)관련 프로그램,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입, 제작, 개발 및 유지관리 비용(50만원 이상)
- 7) 구성비는 해당 분기의 설비투자 실적(신규회계액 중 기계장치 + 차량, 선박, 운반구 + 공구기구비용 + 건설중인 자산액 소계) 중 증감내역별로 구분한 비율을 적어 주십시오.
- 8) 주요 증감사유는 증감내역의 비중이 큰 것 위주로 구체적인 자산의 명칭과 투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예) 사육장축, OO지을 짓고 활용, OO허를 생산시설 신축, OO허를 생산능력 확충

주: 한국은행 조사표 양식 예시.